

HOME 뉴스 사회 진해구

진해 블라썸여좌사업으로 여좌동 일대 도시재생 추진

공태경 기자

승인 2018.03.22 09:19



창원시는 진해구 여좌동 일대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반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블라썸(Blossom)여좌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지난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라썸(Blossom)여좌사업'은 '벚꽃이 피는 여좌', '주민의 형편이 나아지고 얼굴이 펴지는 여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물리적 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군항제 관광지의 메카인 여좌천을 중심으로 여좌천 일대 정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골목길, 청정안심골목길(CPTED셉테드 도입), 힐링로드 등을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세대·계층간 공동체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주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수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좌천 일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올해 6월 완료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용역진행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은 용역완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마을학교'와 '도시재생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강화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여좌동 관광상품 개발 및 군항제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등의 지역 주민 직접참여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블라썸여좌사업 추진으로 여좌동 일대 핵심자원인 여좌천과 내수면생태공원, 장복산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2018년 공모예정인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진해원도심 일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 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태경 기자 tkkong0820@naver.com

<저작권자 © 창원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